

Liquidity Tracker

위험 자산 선호 속 가파른 시장 금리 상승을 경계

- 선진국 주식형 펀드 +180.3억 달러, 신흥국 주식형 펀드 +76.5억 달러
- 선진국 채권형 펀드 +43.3억 달러, 신흥국 채권형 펀드 +14.0억 달러

주식형 펀드, 모든 지역에서 3주 연속 자금 유입. 유입 규모도 높은 수준

금주(1/25~1/31)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 지속. 전주 대비 유입 강도는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자금 유입 규모는 높은 수준. 선진국 주식형 펀드 180.3억 달러 순유입(지난 주 +251.8억 달러), 신흥국 주식형 펀드 76.5억 달러 순유입(지난 주 +80.4억 달러).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3주 연속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한국 배분액도 5.4억 달러 순유입(지난 주 +8.3억 달러)되면서 매수 강도는 둔화됐지만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

선진국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경계. 마찰적 조정 가능성 염두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연초 2.41%에서 1개월 만에 2.80%내외까지 상승. **1월 금리 상승은 글로벌 경기 성장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 글로벌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1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상향 조정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 상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시장에 마찰적 조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 높아진 금리 레벨을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 특히 1월 글로벌 증시가 5.6%상승(MSCI AC World기준)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음. 국내 증시는 애플의 아이폰X 생산량 축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염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펀더멘털 개선은 지속. 주식 시장의 중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

글로벌 주식 시장의 중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2018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신흥국의 기업 실적이 모두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정리를 하면 금리 상승은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고, 글로벌 기업 실적도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시장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그림 1. 18년 1월, 가파르게 상승한 미국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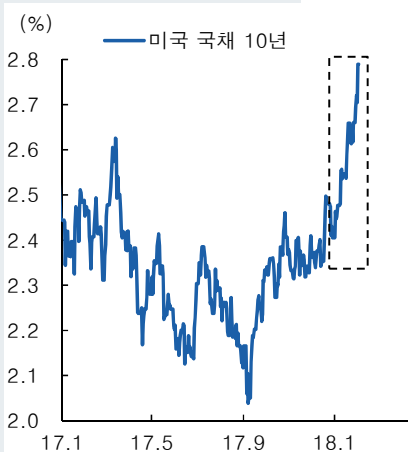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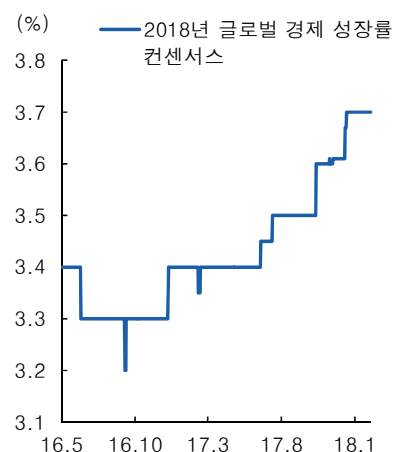


그림 2. 선진국, 신흥국 기업 실적 상향 지속



그림 3.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Weekly Key Table

표 1. 글로벌 주식형 펀드 현황

(백만달러)

		1주간 유입강도(%)			4주간 순유입		연간 순유입액			총자산		
		1/25~1/31	1/18~1/24	1/11~1/17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신 홍 국	GEM	0.55	0.72	0.50	16,877	2.32	17,740	55,414	20,368	744,580	663,001	433,073
	아시아(일본제외)	0.67	0.50	0.06	6,526	1.33	7,208	8,017	-24,197	498,473	452,548	322,706
	라틴아메리카	0.23	0.33	0.46	240	0.62	384	3,958	1,189	39,139	34,115	24,316
	EMEA	0.20	0.26	0.37	619	1.30	605	-2,362	61	48,381	43,825	38,664
	신흥국(전체)	0.58	0.61	0.33	24,262	1.86	25,937	65,027	-2,580	1,330,574	1,193,490	818,759
선 진 국	북미	0.21	0.13	0.12	30,742	0.57	20,483	3,291	-27,509	5,467,393	5,200,119	4,279,799
	유럽	0.00	0.31	0.23	10,379	0.69	11,073	36,108	-98,561	1,516,265	1,410,737	1,062,988
	아시아 태평양	0.41	0.58	0.58	12,888	2.17	13,256	45,891	9,910	606,119	565,990	405,410
	글로벌	0.16	0.40	0.26	28,929	1.19	31,920	144,165	25,497	2,462,756	2,300,687	1,640,344
	선진국(전체)	0.18	0.25	0.20	82,937	0.83	76,733	229,455	-90,662	10,052,532	9,477,533	7,388,541
한국관련 펀드 합계		0.33	0.50	0.32	65,220	1.54	70,125	253,487	31,578	4,311,928	3,982,226	2,801,533

주1: 한국관련 펀드 = GEM + 아시아(일본제외) + 아시아태평양 + 글로벌

주2: 1주간 유입강도 = 1주간 유입액 / 총자산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2. 글로벌 채권형 펀드 현황

(백만달러)

		1주간 유입강도(%)			4주간 순유입		연간 순유입액			총자산		
		1/25~1/31	1/18~1/24	1/11~1/17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신 홍 국	GEM	0.56	0.65	0.96	10,304	3.14	11,682	63,202	18,983	338,365	314,441	217,917
	아시아(일본제외)	-0.32	-0.50	0.31	-278	-0.27	301	2,734	3,852	100,899	97,036	70,070
	라틴아메리카	-0.61	-0.02	-0.40	-52	-0.28	23	2,058	-252	18,830	17,987	14,538
	EMEA	-0.27	-0.21	-0.15	-85	-0.66	-104	459	16	12,847	12,450	9,055
	신흥국(전체)	0.30	0.35	0.73	9,889	2.14	11,902	68,454	22,599	470,940	441,914	311,579
선 진 국	북미	0.14	0.16	0.05	16,825	0.66	21,435	196,237	124,110	2,575,362	2,557,582	2,225,489
	유럽	-0.02	-0.04	-0.04	-542	-0.06	1,002	18,465	745	909,351	862,171	709,437
	아시아 태평양	-0.12	-0.18	-0.06	-218	-0.53	-317	-674	-3,635	41,242	40,169	38,343
	글로벌	0.11	-0.15	0.09	2,475	0.28	3,658	63,518	3,964	885,437	849,987	680,592
	선진국(전체)	0.10	0.05	0.04	18,541	0.42	25,777	277,546	125,184	4,411,392	4,309,908	3,653,860
하이일드채권		-0.49	-0.47	-0.46	-6,272	-1.14	-5,389	-16,970	10,377	541,690	547,304	499,180
글로벌 MMF		-1.08	0.09	-0.38	-35,398	-0.85	3,890	145,134	-29,706	4,111,809	4,066,499	3,744,956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3. 글로벌 섹터 펀드 현황

(백만달러)

		1주간 유입강도(%)			4주간 순유입		연간 순유입액			총자산		
		1/25~1/31	1/18~1/24	1/11~1/17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상품/소재		0.16	0.60	0.20	2,390	0.99	2,356	11,300	37,782	242,885	230,361	189,031
소비재		-0.76	-0.63	0.02	-1,314	-1.82	-1,483	1,600	-8,837	70,991	68,875	54,566
에너지		-0.50	-0.15	-0.20	-384	-0.28	-489	2,452	5,881	136,689	130,706	135,782
금융		0.73	0.40	1.00	2,878	1.69	3,570	25,219	9,825	173,595	157,257	109,839
헬스케어/바이오		-0.05	-0.41	-0.10	-420	-0.36	218	-2,669	-9,370	114,642	107,164	89,952
인프라		0.12	-0.05	0.00	123	0.31	291	668	-1,020	39,140	38,564	30,845
부동산		-0.19	-0.01	-0.32	-1,655	-0.45	-1,412	-11,326	9,740	369,148	365,684	350,249
테크놀로지		0.89	1.40	0.50	5,403	3.71	5,656	18,329	-2,781	151,088	135,128	79,149
통신		0.83	-0.70	-0.32	57	1.45	73	-81	33	4,000	3,910	5,015
유틸리티		-0.70	0.90	-0.56	141	0.26	-210	280	1,096	53,950	54,161	42,439
산업재		-0.72	0.23	1.72	1,589	4.52	2,932	3,142	7,440	36,758	31,966	23,103
섹터펀드(전체)		0.03	0.25	0.12	8,808	0.64	11,503	48,923	49,836	1,392,886	1,323,776	1,110,043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4. 후강통 관련 글로벌 자금흐름 현황 (백만달러)

펀드자금 이동 경로				주간유입액					연간유입액
				1/25~1/31	1/18~1/24	1/11~1/17	1/4~1/10	4주 합계	2018
펀드플로우	본토	홍콩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3	-9	10	20	25	156
	투자	중국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1,171	452	-69	-588	967	932
	(A)	해외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16	10	0	1	27	28
	A주 유입 합계			1,191	453	-58	-566	1,019	1,116
	홍콩	홍콩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150	-183	-643	-774	-1,450	-1,564
	투자	중국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83	39	10	-1	130	125
	(H)	해외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6	-3	0	-24	-34	-141
	H주 유입 합계			227	-148	-633	-800	-1,354	-1,579
	해외소재 중국(A&H)투자펀드			2,194	2,792	1,681	1,859	8,525	8,970
	중국 배분액 총합			3,612	3,096	990	493	8,191	8,507

자금 이동 경로에 따른 순매수 금액			단위	주간순매수					연간순매수
				1/25~1/31	1/18~1/24	1/11~1/17	1/4~1/10	4주 합계	2018
후강통	후구통(홍콩 → 상해)		백만RMB	2,205	4,278	37	6,977	13,497	15,211
	강구통(상해 → 홍콩)		백만HKD	13,209	18,436	5,861	11,884	49,390	52,460
선강통	선구통(홍콩 → 심천)		백만RMB	2,549	3,535	1,861	5,878	13,823	9,315
	강구통(심천 → 홍콩)		백만HKD	5,015	9,346	3,570	3,566	21,497	18,238

구분		주간 상승률 (%)					연간상승률 (%)
		1/25~1/31	1/18~1/24	1/11~1/17	1/4~1/10	4주 합계	2018
주요인덱스	MSCI China A index	-2.9	2.9	0.1	1.6	1.5	3.7
	MSCI China H index	-0.3	5.6	4.4	1.9	12.1	15.6
	본토프리미엄(A/H) index	0.1	-0.1	0.6	-1.0	-0.3	-1.7
	선전증시 index	-4.2	2.0	-1.2	0.6	-2.9	-1.1

주1: 본토프리미엄은 주간 MSCI China index 대비 MSCI China A index 상대주가로 도출
주2: 중국으로 유입되는 펀드플로우가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지, 심천에 투자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음
자료: EPFR, HKEX,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Liquidity Tracker

글로벌 유동성, 달러 약세 속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지속

표 5. 이머징 국가별 펀드 현황

(%)

	주식형펀드 1주간 유입강도							
	1/25~1/31	1/18~1/24	1/11~1/17	1/4~1/10	12/28~1/3	12/21~27	12/14~20	12/7~13
중국	0.75	0.67	0.22	0.11	0.08	0.27	0.12	-0.07
한국	0.37	0.57	0.41	0.45	0.13	0.08	-0.06	0.08
브라질	0.32	0.53	0.48	0.34	0.18	0.10	0.40	0.11
대만	0.38	0.45	0.34	0.45	0.12	0.10	-0.16	0.08
남아프리카	0.45	0.62	0.41	0.49	0.14	0.07	-0.03	0.02
인도	0.51	0.53	0.28	0.45	0.10	-0.03	0.10	-0.06
러시아	0.41	0.64	0.64	0.67	0.06	-0.08	-0.31	0.16
멕시코	0.63	0.64	0.43	0.09	0.20	-0.03	0.28	-0.07
말레이시아	0.48	0.78	0.62	0.92	0.16	0.09	-0.22	0.18
태국	0.23	0.09	0.35	-0.17	0.73	0.58	0.15	0.26
인도네시아	0.51	0.62	0.38	0.54	0.22	0.08	-0.09	0.07
폴란드	0.38	0.61	0.31	0.42	0.08	0.00	-0.13	0.12
칠레	0.37	0.64	0.40	0.44	0.38	0.10	0.19	-0.18
터키	0.37	0.52	0.32	0.47	0.07	-0.28	-0.15	0.12
콜롬비아	0.45	0.44	0.46	0.09	0.09	0.11	-0.09	0.20
필리핀	0.43	0.62	0.48	0.54	0.21	0.04	-0.18	0.10
페루	0.35	0.63	0.55	0.48	0.24	0.15	-0.31	-0.28
체코	0.35	0.57	0.33	0.44	0.10	0.00	-0.09	0.07
헝가리	0.46	0.63	0.39	0.51	0.09	-0.05	-0.12	0.13
이집트	0.54	0.66	0.48	0.51	0.16	0.02	-0.16	0.13
그리스	0.78	0.81	0.52	0.83	0.07	0.41	0.13	0.09
카타르	0.53	0.52	0.54	0.44	0.08	0.00	-0.34	0.02
UAE	0.50	0.57	0.42	0.46	0.10	0.02	-0.26	0.00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6. 아시아 주요 6개국 외국인 매매 동향

(백만달러)

	1주간 순매수			4주 및 연간 합계		연간 순매수액				
	1/29~2/1	1/22~1/26	1/15~1/19	4주 합계	2018년 (YTD)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한국	-688	545	359	416	1,586	1,586	5,399	9,496	-3,256	4,787
대만	112	659	1,169	1,901	2,623	2,623	4,678	9,979	1,665	11,770
인도	65	981	739	1,727	2,039	2,039	8,014	2,903	3,274	16,162
태국	-136	131	76	-142	-155	-155	-795	2,240	-4,372	-1,091
인도네시아	-259	51	75	-22	63	63	-2,966	1,253	-1,572	3,772
필리핀	-113	11	56	4	19	19	1,095	83	-1,194	1,256
합계	-1,020	2,377	2,474	3,884	6,175	6,175	15,426	25,955	-5,455	36,655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